

ACI Monthly Newsletter

July 2024

Audit Committee Institute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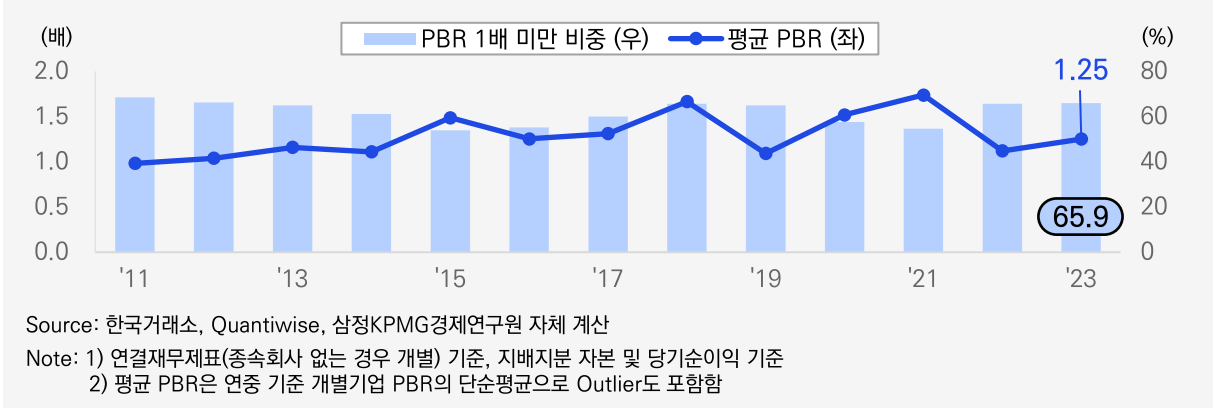


I. In-depth Topic

01_ KOSPI 기업 PBR, ROE, 자본비용, 배당정책 현황과 시사점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을 위해서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고려한적절한 주주환원의 필요성 부각. 이에 현재 국내 KOSPI 기업의 PBR, ROE, 자본비용 등 현황을 통해 시사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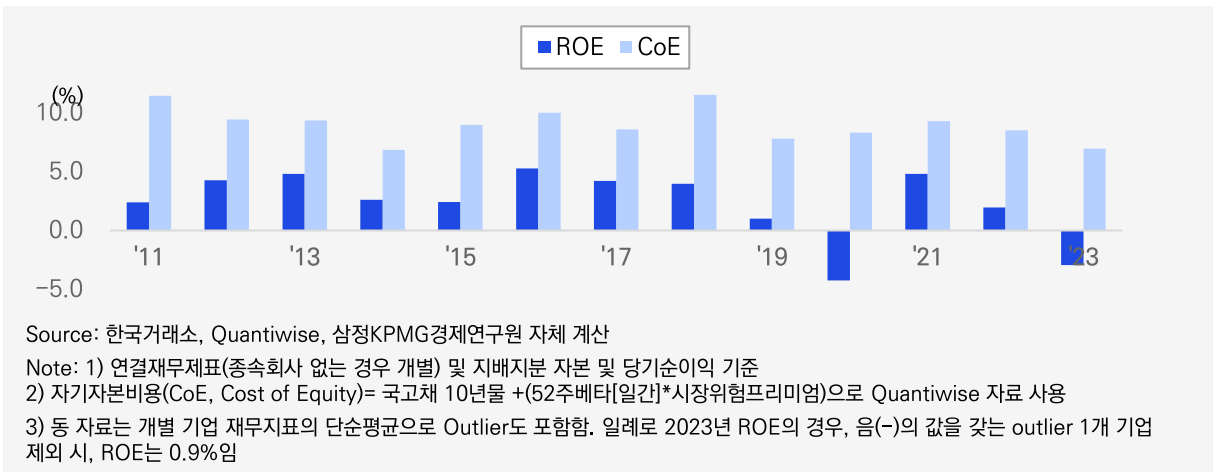
▶ 평균 PBR 및 PBR 1배 미만 기업 비중 추이



국내 KOSPI 기업 평균 PBR은 '23년 1.25배이며, 65.9%가 1배 미만을 기록하며 저평가 지속

- KOSPI 기업의 평균 PBR은 '11년 0.98배에서 '18년 1.66배, '21년 1.73배로 높아졌으나, '23년 1.25배로 하락
- KOSPI 기업 중 PBR 1배 미만인 기업 비중은 '11년 68.5%에서 '15년 53.9%, '21년 54.6%를 기록하였으나, '23년 65.9%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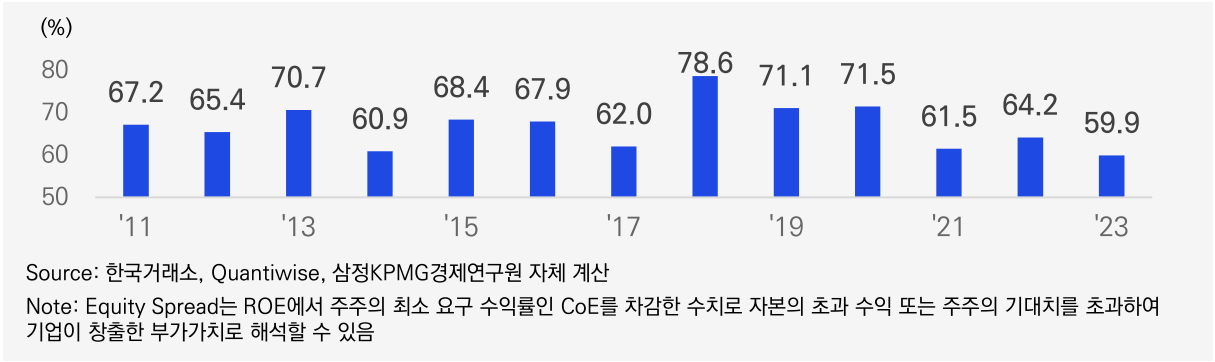
▶ 평균 ROE와 CoE 추이



KOSPI 기업의 수익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자본수익성(ROE)이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인 자본비용(CoE)을 지속적으로 하회

- KOSPI 기업의 자본수익성인 ROE는 '11년 2.4%에서 '16년 5.3%로 상승하였으나 '20년과 '23년 음(-)의 값을 기록
- 자본비용(CoE, Cost of Equity)는 '11~'23년 중 평균 6.8~11.5% 범위로 '23년에는 7.0%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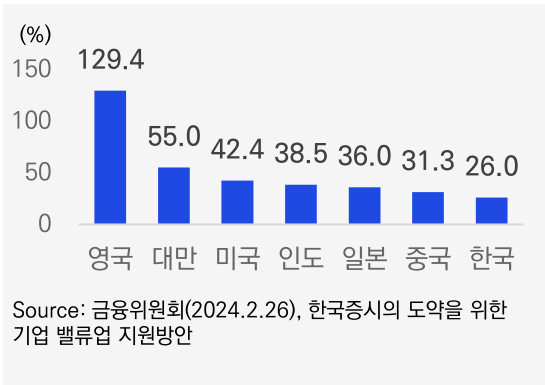
▶ Equity Spread(ROE-CoE)가 음(-)인 KOSPI 기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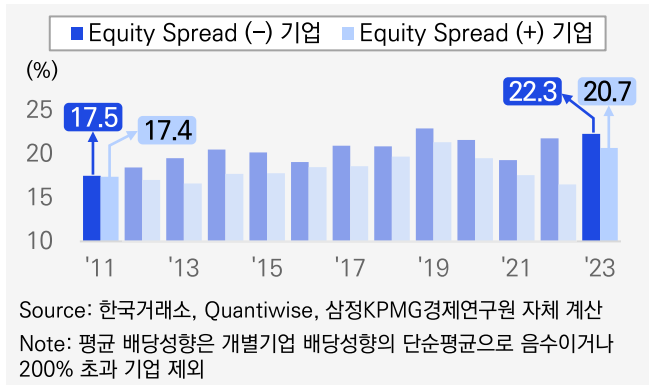
KOSPI 기업 중 60% 이상 자기자본비용 대비 자본수익성 저조

- KOSPI 기업 대상 ROE가 CoE를 하회하는 기업 비중은 '11~'23년 중 지속 60% 이상을 차지

▶ 주요국 배당성향 ('14~'23년 평균)



▶ KOSPI 기업 평균 배당성향



최근 국내 KOSPI 기업 배당성향이 소폭 높아졌으나,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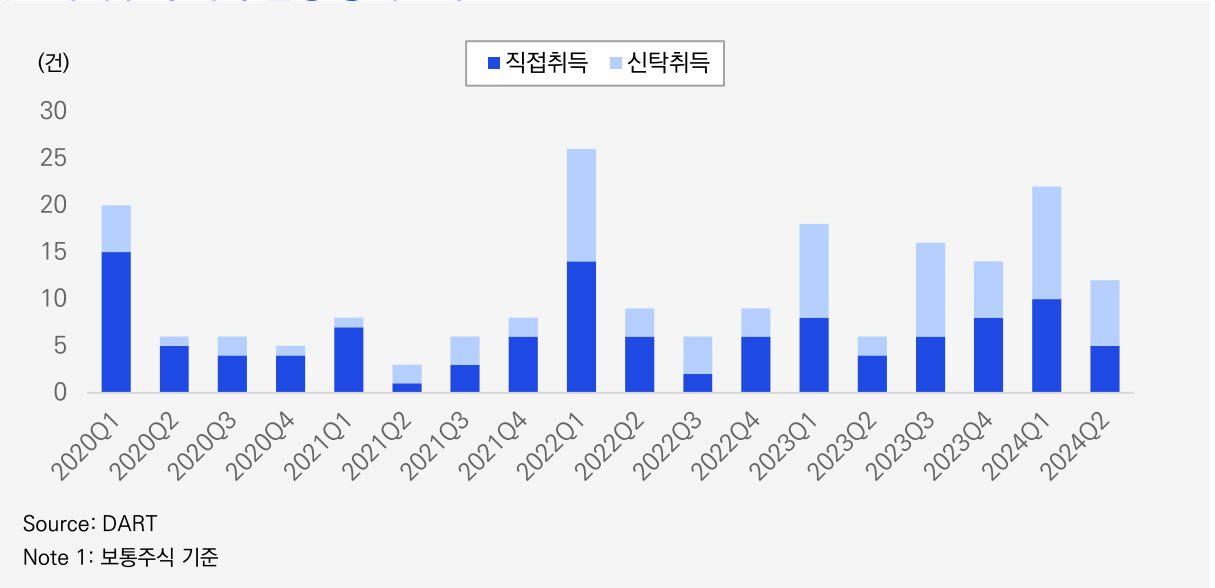
- KOSPI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은 '11년 17.5%에서 '23년 21.5%로 전반적으로 상승. 그러나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지속
 - ▶ 주주환원을 강조하는 기관투자자와 정부 정책 기조, 상장사의 노력으로 배당성향 소폭 개선
- '23년 기준 Equity Spread가 (-)인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은 22.3%로 (+)인 기업 대비 1.6%p 높은 수준에 불과
 - ▶ 자기자본비용 대비 수익성이 취약한 기업의 경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재투자보다 주주환원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배당을 소폭 확대한 것으로 해석
 - ▶ 그러나 이러한 주주환원이 ROE 제고 등에 기여하거나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국내 기업의 저PBR 현상 개선을 위한 시사점

- 국내 기업의 주식 저평가 현상은 기업의 수익성이 자본비용을 하회하며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데 기인. 자본효율성과 기업 수익성 개선을 위한 중장기 경영 방안 시급
- 기업이 배당과 재투자 등을 결정 시, 회사의 수익성과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인 자본비용을 고려한 최적의 균형점 모색 필요
- ROE가 자기자본비용보다 높을 경우 투자를 확대하고, 그 반대의 경우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ROE 제고 → 적극적 주주환원 →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 선순환 구조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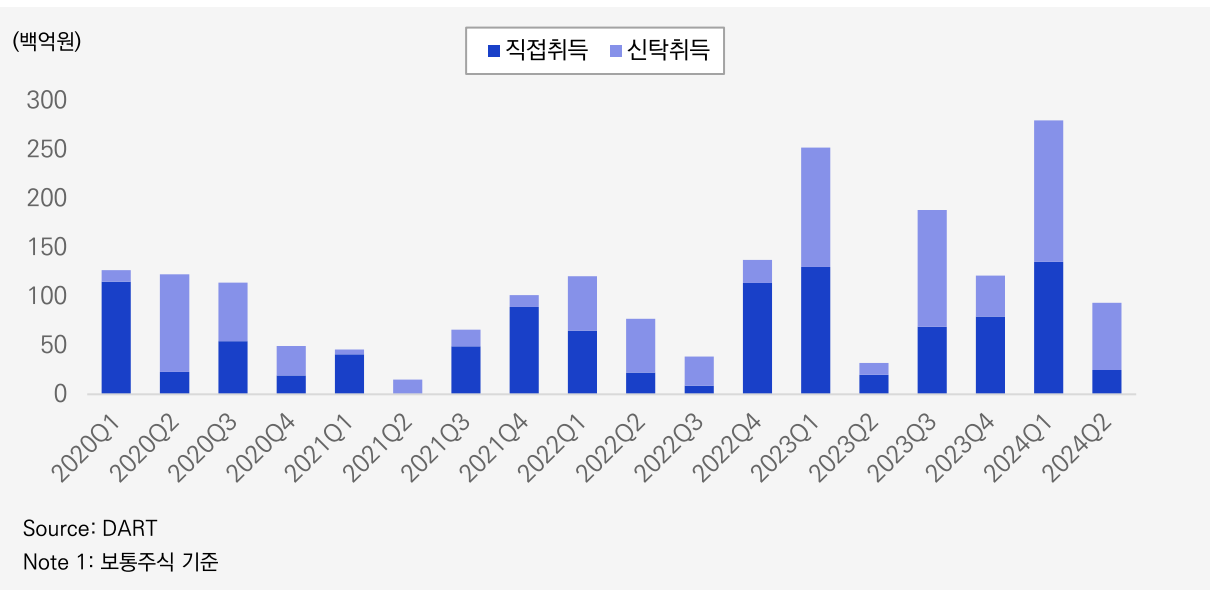
02_ KOSPI200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 추이

▶ 자기주식 취득 결정 공시 건수



- '20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KOSPI200 기업의 자기주식 직접취득 결정 공시는 총 114건,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 결정 공시는 총 86건이었음
- '20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공시된 자기주식 직접취득 예정금액은 10.6조 원,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 결정 계약 금액은 9.2조 원이었음
- 공시자료에 따르면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가장 큰 목적은 주가안정과 주주가치 제고임
- '23년 동안 자기주식 직접취득 결정 이나 신탁계약 체결 결정 공시를 한 KOSPI200 기업은 모두 37개사였음
 - 공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보유했을 때 시장 수익률 (KOSPI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은 평균 17%이었음

▶ 자기주식 취득 예정 금액



II. Law & Regulation

▶ **보도자료**

01_금융업 상장사의 주식 재무공시를 국제표준(XBRL) 데이터 기반으로 확대하고, 상장사 지원을 강화

[금융감독원, 2024.7.2]

- 금융업 XBRL 주식 재무공시 - '25년도 반기보고서부터 단계적 시행
 - 금융업 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기준 개별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법인부터 XBRL 주식 재무공시를 시행하고 단계적 확대

구분	최초 적용 시기					
	비금융업			금융업		
	'23년도 사업보고서 (24년 3월 제출)	'24년도 사업보고서 (25년 3월 제출)	'25년도 사업보고서 (26년 3월 제출)	'25년도 반기보고서 (25년 8월 제출)	'26년도 반기보고서 (26년 8월 제출)	'27년도 반기보고서 (27년 8월 제출)
상장사 (유가증권, 코스닥)	최초 적용그룹	두번째 적용그룹	세번째 적용그룹	두번째 적용그룹	세번째 적용그룹	네번째 적용그룹
	2조원 이상 (기시행)	5천억원 이상 ~ 2조원 미만	5천억원 미만	10조원 이상	2조원 이상 ~ 10조원 미만	2조원 미만
	156社	340社	1,825社	27社	14社	93社

- 상장사·회계법인에 대한 지원 강화 - 공시·회계 유관기관과 협력

▶ **보도자료**

▶ **해설서**

02_채무구조도 등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를 마련

[금융위원회, 2024.7.3]

-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 관련 해설서를 마련하여 채무구조도 등이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해설서에는 채무구조도상 채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포함
-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금융권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답변내용을 공개하는 등 채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 보도자료

03_ '24.7.24일부터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금융위원회, 2024.7.9]

- 내부자(임원¹⁾·주요주주²⁾)가 그 상장회사의 대규모 주식(특정 증권 등³⁾) 거래시⁴⁾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 1)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
- 2)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 3) 그 회사의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 포함
- 4)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시(과거 6개월 합산 기준)

▶ 보도자료

04_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금융위원회, 2024.7.12]

-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 실시 예정
- 한편,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관련하여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 주요내용

“위법행위 고려요소”

- ①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 ② '위법행위의 결과' 등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 상 기관에 대한 제재 사유, 과거 검사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하여 8개의 세부 판단기준을 제시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

- 제재조치의 감면을 위한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그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를 말함
- 상당한 주의 여부는 임원 등이 ①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와 ②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예정

▶ 보도자료

05_ '24년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 2024.7.12]

- '24.7.12.(금) 금융감독원은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24년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선제적 건전성 관리, 견고한 내부통제 구축 등 은행산업의 당면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 특히, 지배구조의 최정점에서 경영전략을 설정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

이사회에 대한 당부사항

①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을 선도(先導)

- 대부분의 은행이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 취지에 맞게 이행계획을 수립·이행하였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이행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아직도 보완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CEO 및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모범관행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영승계절차나 이사회 구성·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조기에 확정될 필요

②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유지를 위한 선제적 위험관리

- 은행의 위험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
- 경제·금융시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본관리가 필요

③ 금융사고·불완전판매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및 건강한 리스크 문화 조성

- 내부통제 강화 및 건강한 리스크 문화(Risk Culture)* 조성 등에 이사회 주도적인 역할 필요

* 리스크의 인식·감수·관리에 대한 조직내 규범, 태도, 행태와 리스크 관련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통제체계

III. Expert Reports

▶ 다운로드

기업회생시장 동향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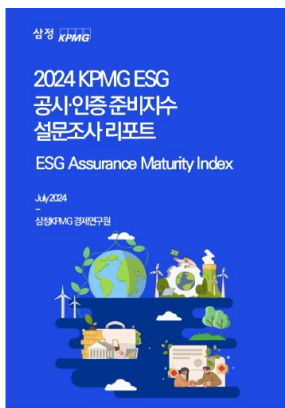


- 경영난으로 한계 상황에 봉착하며 회생절차 밟는 기업 증가세
- 회생절차는 기업 경영 정상화 기회로 M&A는 중요 선택지
- 매수자·매도자 모두 사업구조 효율화 기회로 M&A 전략 검토 필요

KPMG Reports

* 보고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01



2024 KPMG ESG
공시·인증 준비지수
설문조사 리포트

02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 동향과 주요 이슈

03



구매·조달의 미래: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조달 분야의 대응 전략